

# 64년 만에 亞 축구 정벌 나서는 클린스만호...오랜 숙원 해소 될까

손흥민·황희찬·이강인·김민재...초호화 라인업 자랑

1960년 2회 이후 64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 도전나서

한국 축구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아시아 정상 탈환을 위해 출격한다.

위르겐 클린스만(독일)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은 오는 13일(한국시간) 막을 올리는 2023 아시아축구연맹(AFC) 카타르 아시안컵에 출전한다.

아시안컵 우승은 한국 축구의 오랜 숙원이자다. 1956년 초대 대회와 1960년 제2회 대회에서 2연패를 달성한 이후 우승컵을 들지 못했다.

다부진 각오로 64년만의 아시안컵 정상 탈환에 나선 대표팀에는 '캡틴' 손흥민(토트넘)을 필두로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황희찬(울버햄튼) 등 유럽 주요 클럽에서 활약 중인 주축 선수들이 총출동한다.

지난해 3월 지휘봉을 잡은 클린스만 감독에게는 '중간 평가의 의미도 갖는 대회'다.

이번 대회는 모두 24개국 출전해 4개국씩 6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다. 한국은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 E조에 속해 있다.

각 조 1~2위는 16강에 직행하고, 각 조 3위

중 성적이 좋은 네 팀이 토너먼트에 합류한다. 한국(국제축구연맹 랭킹 23위)은 바레인(15일·86위), 요르단(20일·87위), 말레이시아(25일·130위)를 차례로 상대한다.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막강 공격진이다. 한국 축구의 간판이자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진출 후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한 황희찬(울버햄튼), 미래로 평가받는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이 포진해 있다.

손흥민에게는 네 번째 아시안컵이다. 2011년 카타르 대회(3위)를 시작으로 2015년 호주 대회(준우승), 2019년 아랍에미리트(UAE) 대회(8강)에 출전했다.

최근 절정의 골 감각을 선보여 기대감이 크다. 이번 시즌 리그에서 12골(5도움)을 터뜨리며 득점부분 공동 3위에 자리했다. EPL에서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 중이다.

최근 한 달 사이에 3골 3도움으로 아시안컵을 앞두고 예열을 마쳤다. AFC는 손흥민을 '이번 대회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선수'로 꼽았다.

손흥민과 함께 EPL에서 한 획을 그은 황희찬도 주목할 선수다.

황희찬은 2021~2022시즌 EPL 진출 이후 처음으로 리그 두 자릿수 득점을 하고 있다. 최근 한 달 세 3골 1도움을 올리는 등 이번 시즌 10골(3도움)을 기록하며 득점부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여기에 한국 축구의 미래로 평가받는 이강인은 지난해 여름 빅클럽인 프랑스 리그 1 파리 생제르맹(PSG)으로 이적하면서 한층 볼륨 기량을 과시하고 있다.

클린스만호에서 중용되고 있는 이강인은 지난해 10~11월 A매치 평가전과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데뷔 골을 터뜨리는 등 4골을 퍼부으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양질의 패스와 특유의 넓은 시야를 앞세워 최전방 공격진들에게 힘을 불어넣고 있어 기대가 크다.

특히 센터백 김민재는 세계 최고 명문 중 하나인 바이에른 뮌헨(독일)에서 주전으로 자리 매김하며 세계적인 수비수로 성장했다.

지난해 프로축구 K리그 1 '다렌딩 챔피언' 울산 HD의 우승을 이끈 김영권, 정승현, 설영우, 김태환을 필두로 김진수(전북), 이기재(수원삼성), 김주성(서울) 등은 수비 라인에서 경쟁한다.

미드필드에서는 문선민, 박진섭(이상 전북), 이순민(광주)과 황인범(조배즈), 박용우(알아인), 홍현석(헨트), 이재성(마인츠), 정우영(슈투트가르트) 등 국내외 해외파가 조화를 이



룬다. 골키퍼는 주전 자원이 김승규(알사법), 조현우(울산)에 이어 송범근(쇼난벨마레)이 힘을 보탠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한국의 조별리그 통과를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16강 토너먼트부터 방심은 금물이다. 2019년 대회 8강에서 카타르에 일격을 당한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우승이 목표인 클린스만 감독은 경쟁상대로 일본, 호주, 우즈베키스탄, 이란, 카타르 등을 꼽고 있다.

그는 "한국에 64년은 너무 긴 것 같다. (우승

을 위해선) 운도 따라야 할 것이다. 큰 대회에서는 타이밍이 중요하다. 선수들이 부상 없이 잘 해서 소속팀에서의 활약을 대표팀에서도 이어간다면 64년 동안 없었던 우승을 꼭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한국 그리고 나의 라이벌이다. (만나면) 특별한 경기가 될 것이다"며 "라이벌전은 특별하고 기대되고, 기다려진다. 일본을 언젠가 만날 것이다. 결승에서 만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뉴시스

## 이강인 이라크전 레드카드, 7년3개월만의 태극전사 퇴장

'A매치 7경기 연속 무실점' 클린스만호, 역대 공동 3위 기록



아시안컵을 대비한 이라크와의 최종 평가전에서 나온 이강인의 레드카드는 7년3개월 만에 나온 태극전사 퇴장이었다.

대한축구협회는 "한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2016년 10월 수원에서 열린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카타르와 경기에서 홍정호가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한 이후 7년3개월만"이라고 7일 밝혔다.

경기 숫자로는 96경기 만이다. 또 한국 선수가 A매치에서 퇴장당한 것은

이강인이 통산 45번째다.

이강인은 한국시간으로 전날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의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치른 이라크와의 평가전에서 후반 교체로 투입됐다.

하지만 후반 41분 이라크의 아흐메드 야히아와의 경합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후반 24분 한 차례 경고를 받았던 이강인이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했다.

다행히 이라크전 퇴장은 아시안컵 출전과는 연계되지 않는다.

클린스만호는 이라크전 1-0 승리로 지난해 9월 웨일스와의 평가전 0-0 무승부를 시작으로 7경기 연속 무실점(6승1무)을 기록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은 한국대표팀 역대 A매치 공동 3위에 해당한다.

역대 1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 2015년 8월 동아시아컵 북한전(0-0 무)부터 2016년 3월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전 몰수승(3-0 승)까지 10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2위는 1970년 한홍기 감독 시절의 8경기, 다른 공동 3위(7경기 연속 무실점)는 1978년 함흥철 감독과 1989년 이희택 감독이 지휘하던 때다.

## 이재성, 아시아팀에 강했다...A매치 10골 중 亞 상대 6골

월드컵 예선 후 2년2개월 만 또 이라크전 득점



축구 국가대표팀 미드필더 이재성(마인츠)이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시안컵'을 앞두고 열린 최종 평가전에서 골맛을 보며 아시아팀에 강한 면모를 과시했다.

한국 축구대표팀은 지난 6일(한국시간)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있는 뉴욕대 스타디움에서 열린 이라크와 평가전에서 이재성의 결승골에 힘입어 1-0으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클린스만호는 지난해 9월 웨일스전 0-0 무승부 이후 7경기 연속 무실점(6승1무)을 기록했다. 7경기 연속 무실점은 한국 A매치 공동 3위 기록이다. 역대 1위는 울리 슈틸리케 감독 시절인 2015년 8월 동아시아컵 북한전부터 2016년 3월 월드컵 예선 쿠웨이트

전 몰수승까지 이어진 10경기 연속 무실점이다.

이날 이라크를 상대로 유일한 득점을 기록한 이재성은 약 2년2개월 만에 A매치 골맛을 봤다. 광고포개도 직전 A매치 득점 상대 역시 이라크였다. 2021년 11월17일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에서 이라크를 상대로 선제골을 넣어 3-0

승리를 이끌었다.

이재성이 아시아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준 점은 아시안컵 개막을 앞둔 클린스만호에 정신포다.

이재성은 A매치 통산 78경기에서 10골을 넣었는데 이 가운데 6골이 아시아팀과 경기에서 나왔다.

2015년 6월 2018 FIFA 러시아월드컵 2차예선 당시 미얀마를 상대로 A매치 2번째 골을 성공시킨 그는 9월 라오스전에서도 골을 넣었다. 같은 해 11월 월드컵 2차 예선 미얀마전에서 또 골맛을 본 이재성은 2017년 12월 '2017 동아시아축구연맹(AEAF) E-1 챔피언십' 중국전에서도 1골을 넣었다. 이후 이라크전에서 2골을 추가했다.

아시아팀에 강했던 이재성이 아시안컵을 앞두고 득점포를 가동하면서 기대감이 한층 커질 전망이다.

카타르에서 열리는 이번 아시안컵은 오는 12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도하, 알라이안 등 8개 경기장에서 펼쳐진다. E조에 속한 한국은 15일 바레인, 20일 요르단, 25일 말레이시아를 차례로 상대한다. 한국은 1960년 이후 64년 만에 우승에 도전한다.

## KIA, 새 외국인 투수 월 크로우 영입...MLB 통산 10승

'뛰어난 구위, 다양한 변화구 위력적'

KIA 타이거즈가 새 외국인 투수 월 크로우(30)를 영입했다.

KIA는 7일 "오른손 투수 월 크로우와 계약금 20만 달러, 연봉 60만 달러, 옵션 20만 달러 등 총액 100만 달러에 계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크로우는 미국 테네시주 킹스턴 출신으로 신장 185cm, 체중 108kg의 체격을 갖췄다.

메이저리그(MLB)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다. 2020년 워싱턴 내셔널스 유니폼을 입고 빅리그에 입성한 그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피츠버그 파이리츠에서 뛰었다.

2021년 26경기 중 25경기를 선발로 나서며 4승8패 평균자책점 5.48을 기록했다. 중간 투수로 자리를 옮긴 2022년에는 60경기에서 6승10패16홀드 4세이브 평균자책점 4.38을 작성했다.

올해는 5경기에 등판, 1패 1세이브 평균자책점 4.66을 작성하는 등 MLB 통산 94경기(선발 29경기) 10승21패16홀드 5세이브 평균자책점 5.30의 성적을 냈다.

마이네리에서는 통산 75경기(선발 59경기) 21승16패1홀드 평균자책점 4.01을 남겼다.

실제 KIA 단장은 "크로우는 뛰어난 구위가 장점인 우완 투수로 최고 시속 153km의 빠른 볼과 슬라이더, 체인지업 등 다양한 변화구



가 위력적인 선수다. 또한 메이저리그에서 풀타임 선발로 활약한 만큼 경험이 풍부해 선발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KIA는 앞서 외국인 타자 소크라테스 브리토와 총액 120만 달러에 재계약했다. 크로우를 영입하면서 외국인 투수 한 자리만 남겨 놨다.

뉴시스

## 이제 6시즌 뛰었지만...“오타니, 명예의 전당 후보” MLB닷컴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6시즌을 소화한 오타니 쇼헤이(LA 다저스)가 명예의 전당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MLB닷컴은 7일(한국시간) 명예의 전당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는 현역 선수 40명을 선정했다.

매체는 팬그래프 WAR(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을 바탕으로 40명의 선수를 11개의 등급으로 나눴다. "WAR(대체선수대비 승리기여도)만으로 명예의 전당에 올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명예의 전당 현역자의 WAR은 50~70에 달한다. 레전드 선수들은 100을 넘었다"는 설명을 곁들였다.

WAR 32를 기록한 오타니는 4등급(Tier 4)에 이름을 올렸다. 명예의 전당 후보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MLB에서 10년 이상 활동해야 하지만, 강력한 존재감을 선사하고 있는 오타니는 일찌감치 레전드로 인정 받고 있다.

MLB닷컴은 "오타니를 빼고 이 리스트를 만들 수 있을지가 싶다"며 오타니의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MLB에서 6시즌밖에 뛰지 않은 오타니는 명예의 전당에 오르는데 필요한 10시



즌에 부족하다. 두 번째 팔꿈치 수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어 얼마나 더 오랫동안 투타겸업으로 활약할지 알 수 없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이야기가 많다"고 부족한 부분을 짚었다.

그러나 이러한 불안 요소에도 오타니를 향한 강한 신뢰를 드러냈다. 매체는 "두 번의 최우수선수(MVP), 신인상을 받고 베이스루도 하지 못한 일들을 해내며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오타니가 앞으로 어떤 경력을 이어가든 명예의 전당에 입회하지 못하는 결말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적었다.

뉴시스